

장성 진원초, 마을주민 초청 '별빛 음악회'



장성 진원초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교내 강당에서 음악회를 열었다. 학생들이 마을 주민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의 관객 앞에서 평소 갖고 뒀던 실력을 뽐내고 있다. <사진 진원초 제공>

수원청연요양병원 경로당에 한과 전달



수원청연요양병원(병원장 김형광)은 최근 병원 직원과 돈보스코학교 자원봉사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과 500인분을 만들어 지역 경로당에 전달했다. <수원병원 제공>

두암사회복지관 사랑의 밥차 어르신 무료급식



두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주동)은 최근 광주시 북구 두암중2단지 놀이터에서 광주 삼성전자의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원들이 함께하는 사랑의 밥차 어르신 무료 급식을 실시했다.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제공>

김은실 광주대교수·김지선 학생 인체미용학회 우수논문상

광주대학교 뷰티미용학과 김은실 교수와 김지선 대학원생(박사과정)이 제 37회 한국 인체미용예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최근 충북 옥성재단에서 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패션쇼 메이커업에 나타난 타투 문양 분석 연구'라는 주제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김은실 교수 김지선씨 사업과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 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활을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

- 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관용품무로지원, 장례지도사무로지원 062-369-4009.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

- 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출타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화산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산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는 분 061-373-8865.
▲웰다잉(Well-dying)지도자 기본교육과정모집=연명의료결정법시행에 따른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 23일부터 매주 토요일(4회) 김대중컨벤션센터 010-4031-5880.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헌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자나무수 옆 062-512-5788, 062-262-154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푸른길통동문화회 회원=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설원문화연구원=북자, 중국자, 홍차 등 중·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회원=인권, 환경 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 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광주·전남불교신도회원=불교합창단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장업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원=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 모집=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욕망 및 침구제공, 아침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회원 모집=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풍·노환), 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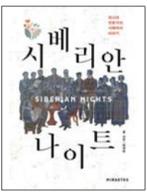
- 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 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분. 011-618-7882.
▲광주장애인 문화협회원=사회복지·봉 사활동 인증센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자 010-2727-1282.
▲각화문화회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 리노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 모 집. 광주시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부음
▲양수정씨 별세 이장동·호석·옥용·옥석·희정씨 모친상 박영자·유영희·정혜경·김 미경·김수복씨 시모상 서동현씨 빙모상=발인 13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는 건 많은 이들의 꿈이죠”

'시베리안 나이트' 펠렌 러시아 전문가 함평 출신 박대일 대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공식 명칭은 '위대한 시베리아의 길'이다. 모스크바를 출발해 우랄산맥을 넘어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는 9288km 길이의 세계 최장의 철도로 열차가 통과하는 도시만 87개에 이른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는 건 많은 사람의 '로망'이다. 열차를 타고 가다 만나는 바이칼 호수의 풍광을 보는 것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시베리아 전문 여행사인 (주)BK 투어서비스를 운영하는 박대일 대표는 지금까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100번도 넘게 탔다. 그가 최근 펠렌 '시베리안 나이트' (도서출판 미래터)에는 시베리아의 역사와 삶, 시베리아 횡단열차, 바이칼 호수 등의 이야기가 빼곡히 담겨 있다. 무엇보다 현지에서 밟히고 살아가는 이의 생생한 경험과 함께 그가 만난 사람들이 간직한 이야기들을 만나는 재미가 쏠쏠하다. 울 켈러로 제작돼 시원한 풍광 사진을 보는 즐거움도 있다.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이르쿠츠크에 정착 한 후 한국을 오가며 여행업을 하고 있는 박 대표는 2010년에는 책 '바이칼'도 펴냈다.
“본격적으로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소개되기 시작한 게 10년 정도밖에 안돼요. 여행 오신분들께 여쭙보면 70% 정도가 영하 ‘닥터 지바고’를 이야기하세요. 평생 소원이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전 구간을 모두 타는 건 150시간 정도 걸리지

만 대부분 바이칼 까지 70시간을 타고 간 후 비행을 타고 나오는 코스를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횡단열차의 매력은 무엇일까.
“처음 횡단열차를 타면 다들 적응이 어려워 어쩔 줄 몰라해요. 이걸 타고 계속 가야해 말아야 해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하죠. 불편하고 힘든 기분이 이를 정도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면서 마음이 편해진다고들 하세요. 열차 안에서 함께 생활해야하니 작은 공동체처럼 금방 마음을 열기도 하구요. 산을 정복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구나’하는 성취감을 느끼고, 내 평생 소원을 이뤘다며 감격해 하시죠. 이런 큰 나라가 있구나 이런 거 모르고 살아갈 뻔 했다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새벽 어스름 도열해 있는 자작나무를 따라 밤이 함께 여행하더라며 감동에 젖는 이들도 있습니다.”
함평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전남대 사회



학과를 나온 그는 1999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베리아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를 찾아 무작정 비행을 탔다.
“세기말, 어수선한 머리를 식히려 놀러 갔는데 완전히 별천지, 다른 세상이었어요.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싶었죠. 무엇보다 정말 컸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것, 화려하지 않지만 광활한 그 무엇이 가슴에 확 와 닿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못보고 죽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막 가슴이 벅차고 그랬죠. 무조건 나는 다시는 안 돌아간다 마음먹었죠.”
하지만 시베리아에서의 생활과 여행업은 녹록치 않았다. 초창기만 해도 시베리

아에 놀러오는 사람이 1년에 몇 명 수준으로 7월 20일에서 8월10일 사이에 국한돼 있다. 이르쿠츠크엔 한국 사람이 3명에 불과했고 지금도 10명을 넘지 않는다. 사기를 당하는 등 적잖은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다.
책에 실린 글은 함께 열차 여행을 하는 이들에게 들려줬던 내용들이다. 여행객 중에는 민족의 시원에 몰두하는 이들도 있었고, 러시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흥미를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책에는 또 여행에서 만난 이들의 사연도 담겨 있다. 겨울에 혼자 횡단열차를 탔던 2년 여성은 2년 뒤 군에서 제대한 아들을 보내기도 했고, 84세 된 서석초등학교 은사님도 만났다. 기억에 남는 건 제주에서 온 80대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가 겨울에 횡단열차를 타셨는데 동영상을 열심히 찍으셨어요. 찾아가는 곳마다 촬영하느라 항상 늦고 하니가 같이 간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했죠. 마지막 날 말씀하시는데 할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어 촬영을 하셨대요. 중학교 때 만나 지금까지 함께 사는데 10년 전부터 치매로 누워계신대요. 증상이 심해져 동영상에만 반응을 하셔서 뒤늦게 동영상 찍는 법과 편집을 배웠대요.”
지난 2008년에는 몽골에 지사를 설립하고 2010년 한국법인도 만든 박대표는 톨스토이, 체홉의 고향 등을 찾아가는 러시아 문화여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송원초, 中 후난민족부속학교와 교육문화교류회

광주송원초등학교는 최근 5박6일간 호남대 공자학원 주관으로 제5회 한중교육문화교류회를 열었다. <사진>
11일 송원초교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웨양 후난민족직업대학부속학교와 화외외국어학교에서 실시된 교류행사에는 송원초 4~6학년 학생 31명과 인솔교사 4명이 참여했다.
행사 첫날에는 양교 문화교류 공연으로 바이올린 중주, 합창, 비파연주, 가야금병창, 태극춤, 체조, 기타 연주, 합주 등을 선보였다. 특히 광주의 자랑이자 중국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정용성 선생의 '우리는 행복해요'를 합창할 때는 현지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고 한다. 이어 다음날 송원초학생들은 후난민족직업대학부속학교 홈스테이를 통해 차파오 입어보기, 단오절 음식 준비하기 등 중국 전통 문화와 다양한 지역 문화를 체험했다.
교류행사에 참여한 송원초 5학년 임석준 학생은 “중국에 친구가 3명이나 생겼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우정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신명성 광주송원초교 교장은 “‘차이나 프렌들리’ 교육 현장 모델로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지속적으로 교류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사진= 송원초 제공>



동강대 간호학과 RCY '사랑의 헌혈 캠페인'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소외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기위해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동강대 간호학과(학과장 지혜련) RCY (Red Cross Youth·청소년적십자) 동아리는 최근 교내 교수연구동과 인문사회관 등지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동강대는 정인주 교수의 주도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4차례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연말에는 화산전남대병원에 헌혈증을 기부하는 등 나눔의 의미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